

일일 국제 기후·에너지 동향

신재생에너지

◆ 호주 재생에너지 관련 양자 협력 동향(주호주대사관)

- 호주 기후변화·에너지·환경·수자원부는 금년도 COP29 계기 다음과 같이 영국 및 인도와 재생에너지 관련 신규 파트너십을 체결함.
- **(호주-인도 재생에너지 파트너십)** 호주-인도 양국 간 기후 및 에너지 협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동 파트너십은 11.19(화) 출범하였으며, 양국은 첨단 재생에너지 기술 상업화를 포함하여 넷제로 전환의 경제적 기회를 최대한 현실화하기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임.
 - 동 파트너십은 8개 중요 협력 분야*로 구성되며, 동 분야 중 △태양광 전지(solar PV) △그린수소는 이미 사업이 진행중이며 나머지 분야들은 1.5트랙 대화를 통해 구체 협력 방향 모색 예정
 - * ①태양광 전지(solar PV) ②그린수소 ③태양광 발전 관련 공급망 ④에너지 저장 ⑤재생에너지 관련 순환경제 ⑥재생에너지 사업 및 관련 분야 양방향 투자 ⑦역량 강화 ⑧기타 상호 관심 분야
 - 양국은 23.5월 교환된 호주-인도 그린수소 태스크포스 TOR 교환 등을 통해 그린 수소 관련 협력을 진행중이며, 태양광 전지 관련해서는 인도에 1천만개 가정집 옥상 태양광 패널 설치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 및 디지털 기술 도입 등 협력 예정
- **(호주-영국 기후·에너지 파트너십)** 동 파트너십은 11.19(화)자로 서명하였으며,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양국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.
 - 동 파트너십의 2대 핵심 분야는 △탄소중립 기술 협력과 △국제 기후 협력 분야로 세부적으로 수소, 녹색 금속, 해상 풍력발전, 에너지 저장, 청정 운송에 관한 기술 교류, 국제표준 수립 및 투자 관련 협력 모색 예정

◆ 덴마크 머스크社, 친환경 연료 분야 지원 촉구(주덴마크대사관)

- 덴마크 해운기업 머스크(Maersk)社는 10.30(수) 중국 재생에너지 기업 Longi Green Technology社와의 친환경 메탄올 연료 장기구매계약 체결 계기, e-메탄올 등 친환경 해운 연료 시장에서 중국이 선도적 입지를 차지하고 있고, 미국은 친환경 연료 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지원 정책을 이행하는 반면, 유럽은 동 분야 지원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고 하면서 우려를 표명함.
 - 머스크社는 유럽이 미·중의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자원 투입 등 정책적 지원에 대한 대응책에 마련하지 못한다면, 동 社의 녹색 전환 목표* 달성을 위해서는 해외기업 친환경 해운 연료에의 의존이 불가피하다고 하며, 유럽이 경각심을 가지고 동 분야 개발 지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
 - * △2030년까지 해상 운송으로 인한 탄소배출량 2020년 대비 절반 감축 △204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추진중. 끝.